

서양화가 임은순 개인전

28일까지 서울 코엑스 특설전시장

서양화가 임은순씨가 28일까지 서울 코엑스 지하1층 코엑스 특설전시장에서 전시회를 갖는다.

임씨는 '잡자는 소녀', '휴식', '여인', '생각하는 여인' 등 작품을 통해 인체의 역동적인 이미지와 강렬한 색채를 대비시킨 작품을 선보인다.

재료에서도 한지와 오일페인팅을 채택함으로써 여성의 신체를 묘사하고 있지만 남성적인 힘과 자연 그대로의 투박함을 살려냈다.

임씨는 조선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한 뒤 광주시전·전남도전 추천작가로 활동하고 있으며,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겸임교수와 아천미술관 학예실장을 맡고 있다.



‘두 여인’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강숙자 오페라라인 ‘유령놀이’

27~29일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강숙자 오페라라인이 제9회 정기연주회로 ‘유령놀이’를 무대에 올린다. 27~29일 오후6시·8시 광주문화예회관 소극장.

‘유령놀이’(원제 무당)는 벤자민 브리튼과 함께 현대 오페라의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메노티의 작품으로 2차 대전이 끝난 1947년 뉴욕에서 초연된 후 브로드웨이 극장에서 212회 공연된 인기 레퍼토이다.

플로라 역의 최은정·오지영, 모니카 역의 김성미·장미희·장 마리아, 토비역의 김봉중·오영무, 놀람 역의 김나연·김지은 등이 무대에 오른다. 메노티는 지난 1998년 올림픽 당시 우리나라의 위촉을 받아 ‘시집가는 날’을 작곡하기도 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27일 ‘광주 문화거버넌스 구축’ 토론회

광주·전남 지역혁신연구회가 주최하는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거버넌스 구축 토론회가 27일 오후 4시 전남대 융복합문화관 시청각실에서 열린다.

최인기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장·도시운영팀장장과 전효관 전남대 문화전문대학원 교수가 각각 ‘광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추진현황과 과제’, ‘지역문화역량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을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 김지원 광주·전남 문화연대 사무국장, 김경학 전남대 교수, 김하림 조선대 교수 등이 참가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나는야 사랑 전달하는 詩 집배원”

도종환(52) 시인은 1999년 영화 ‘박하사탕’을 보며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주인공이 1980년 광주의 여고생을 중심으로 씌 죽이는 장면에서였다. ‘80년 당시 너는 어디 있었던가’라는 질문은 결코 과거형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를 아프게 했다.

마음 무거운 광주의 아픈 기억

지난 24일 광주영상예술센터에서 열린 포옴콘서트에 참가한 도 시인은 “광주는 아픈 기억이 있는 곳이라서 언제나 마음이 무겁다”는 말로 대화를 풀어내었다.

1980년 스텝 일급 늦은 나이에 군에 들어간 도 시인은 ‘사격명령’을 받고 여수 순천간 17번 국도 위에 서 있었다.

“군인이기 이전에, 시인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었던 전 과연 ‘방아쇠를 당겨야 하는지’ 고민했어요. 그 때 광주가 고향인 두 사람이 “동네 사람에게 총을 쏠래”라는 말을 하더군요. 탄창을 빼내 총알을 거꾸로 끼우고 바리케이트 뒤에서 대기했죠. 하지만 그같은 행동을 취했다 해서 ‘가해자’라는 입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었어요.”

이 때 ‘퇴짜된 낭만주의 시’를 쓰던 시골학교 선생은 군용수첩에 ‘사격명령’이라는 시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사건이었다.



포옴콘서트 참석 광주 온 도 종 환 시인

속리산 구구산방 ‘백수’ 시인

전교조, 민예총, 방송일 등으로 바빠 움직이던 ‘일 종독자’ 시인은 3년 째 속리산 자락의 황토집 ‘구구산방’(龜龜山房)에서 ‘백수’로 지내고 있다. 시인을 이곳으로 보낸 건 몸의 균형이 깨져 무기력해지는 ‘병’이었다.

“우리는 속도의 등에 타고 앉아 가속도를 붙여

가며 직선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저 역시 전 속력으로 달려가며 모든 일을 잘 한다는 평가를 기대하며 살았죠. 하지만 결국 사람은 그 속도에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자연이 사람에게 주는 힘과 기운이 넘치는 이곳에서 전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제 기어를 다시 저단 기어로 조절하고 평온해지는 속도와 만나야 해요. 전 그걸 ‘부드러운 속도’라고 불러요.”

시인은 글 쓰는 이에게 평온한 삶과 넉넉한 시

간은 복이라고 말한다.

“예전에는 저녁 늦게 시를 썼는데 이 곳에 와서는 아침 일찍 명상을 한 시간 하고 난 후 책상 앞에 앉아요.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간들이죠. 자연이 저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느끼고 더 많은 사유와 더 많은 글짓기를 통해 좋은 글을 독자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첫 육성 낭송음반 준비 중

시인은 매주 월요일이면 시를 배달하는 집배원이 된다. 문화나눔사업추진위원회(www.for-munhak.or.kr)에서 ‘도종환의 시 배달’을 시작한 것.

시인은 포옴콘서트 제작진과 함께 처음으로 육성 낭송음반을 준비중이다. 음반에는 자신이 뽑은 시 20여편이 실릴 예정이다. 시인은 또 최근 펴낸 ‘해인으로 가는길’의 인세를 베트남 평화학교 건립기금으로 기부기로 했으며 산방에서의 생활을 담은 산문집도 준비중이다.

“언제나 편안한 마음으로 광주에 올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시인을 위해 관객들은 따뜻한 박수와 미소로 그의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 하나를 내려 주었다. 또 우리의 삶이 좀 더 느리고도 힐링해지길 바라는 시인의 바람대로 관객들은 시인의 시로 만들어진 노래를 들으며 ‘부드러운 속도’를 느끼고 돌아갔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클림트 작 ‘바우어 부인’ 회화사상 최고가 1,300억원에 판매

작가 인기로 작품 유명세 상승효과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1862~1918)의 그림 ‘아델레 블로흐-바우어 부인’(1907년작)

■ 왜 고가에 팔렸나

오스트리아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Gustav Klimt·1862~1918)의 그림 ‘아델레 블로흐-바우어 부인’(1907년작)이 최근 회화사상 최고가인 1억3천500만달러(1천300억원)에 판매됐다.

이는 지난 2004년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1억410만달러에 낙찰된 파블로 피카소의 1905년작 ‘파이프를 든 소년’의 최고가 기록을 경신한 것이다.

클림트의 작품이 이 같은 가격에 팔린 것은 작가의 대중적인 인기와 작품의 유명세까지 더해, 상승작용을 일으켰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클림트는 피카소의 인기와 견줄 정도로 폭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로 알려져 있다. 대표작이 시장에 나온 것만으로도 기록적인 가격은 충분히 예견됐다는 것이다.

미술품 경매회사인 K옥션 최은정 과장은 “클림트는 사실 피카소 만큼 세계적인 작가로

넓은 사랑을 받고 있는 작가”라고 말했다. 여기에서 이 그림은 매우 장식적인 무늬와 패턴이 압권이다. 그만큼 클림트의 남다른 조형감과 디자인 능력을 한 걸 보여주는 수작으로 평가된다. 널리 알려진 ‘키스’와 함께 꼽히는 대표작이다. 제작기간만도 8년. 주인공은 클림트의 정부로 알려진 아델레 블로흐-바우어부인이다. ‘키스’의 주인공도 그녀로 알려져 있다.

드물게 갤러리 소장품이 매물로 나왔다가는 점도 가격상승의 한 원인으로 작용했다. 원래 이 그림은 오스트리아 갤러리에 걸려 있었다. ‘공공재인 그림이 개인이 소장할 수 있는’ ‘동산’이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가격이 폭등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블로흐-바우어의 조카인 마리아 알트만(90)은 1938년 오스트리아를 점령한 나치가 이 그림을 포함한 클림트의 회화 5점을 자신의 친척집에서 약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오스

트리아 정부를 상대로 7년간 법정 투쟁 끝에 지난 1월 작품들을 모두 돌려받았다.

클림트의 작품은 속칭 ‘임자를 만나다’ 케이스다. 작품의 구입자는 세계적인 화장품 회사인 에스터 로더 그룹의 로널드 로더(62) 회장이다. 빼어난 조형미와 여성성을 담고 있는 이 그림이 아름다움을 좇는 화장품 회사로서 눈독을 들인 작품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게다가 로더 회장은 독일·오스트리아 작품만을 전시하는 뉴욕 맨해튼의 뉴에 갤러리 관장이기도 하다. 갤러리의 명성에 안성맞춤인 오스트리아 거장의 작품은 돈을 떠나 매력적인 구매대상일 수밖에 없다.

미술평론가 이주원씨는 “이 작품이 클림트 관련 서적에서 ‘키스’와 함께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작품인데다 좀처럼 매물로 나오지 않는 갤러리 소장품이라는 점 등이 가격형성에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엘지공인중개사
T.019-616-2353
011-601-8230

혁신 도곡역 단지내 최고 상업층인 무인텔 (최신시공, 복층구조) -인입세 250~300만 보증

롯데백화점부근 상업용지 3층상가 및 주차장 -보 191천 / 28860만

충장로 4가 5층 상가 -대 53평 건 268평 -보 191 / 160만 -공시지가 당 789만

쌍촌동 동림2지구와 벼들마을 사이 -4가 203도로 권(경사중) -140평 x 390만

쌍촌동 광천교회 부근 -아파트 단지 부지 (8M 계획도로 권) -530평 x 170만

양동 상업지역 고급주택 -6세대 60평 건 61평 -매매가 2억5천

화정동 신동아와 대주 사이 -대 123평 단층상가 -매 3억2천

양동시장과 서부경찰서 사이 내지 -라이프라이프(복합, 주차, 35M도로권) -대 164평

도산동 파랑새예식장 건너편 -20M 도로권 -270평 x 220만

혁신 영평리 전원주택지 -대 333평 x 12만

5층 상가건물 -장동로라파루 대지 180평 건평 470평 -전원주택지 -쌍촌동 부근의 주인권 보이는 전원주택지 대지 1100평 x 10만

이대공인중개사
T.269-3949, 010-2002-5555 (동강대학 후문)

1. 북구 우산동 큰 대로 변 말바우사거리~88메니스 코트사이 대지 90평 매매가 1~13억

2. 담양군 남면 연천리 광주댐상류 인입 7200평 (축사부지 145평 허기) 평당 62,000원

3. 담양군 담양읍 반용리 담양공고 뒤 298평 매매가 평당 40만원

4. 상가주택 매매 북구 두암동 대지 39평 건평 69평 3층건물 용지:8,500 2004년 신축

5. 상가 임대 북구 두암동 시외버스터미널 최고상권(유동 인구 많음) 12평(청고 별도) 보 2,000/월100 권리금 2,500만원

6. 상가매매 북구 문흥동 대지 57평 건평 60평 매매가 1억2,500

토지, 빌딩, 아파트, 상가, 주택임대 성실 책임중개

LC타워(주)
☎ (대)972-8004, ☎010-7154-6896

첨단지구 LC타워

첨단 최고의 요지 최적의 조건으로 임대합니다. 일일 유동인구 1만명 이상

(급)종합학원 임대 3층 265평 A급 시설 완비 전화 상담 요망

◀각층분할가능▶

- 3층 212평 88평 가능업종: 신경정형외과, 안과, 피부비뇨기과, 성형외과, 각종 학원등
- 4층 300평 30평 47평 가능업종: 어린이 교육 및 놀이시설, 각종 사무실등
- 5층 222평 114평 가능업종: 스카이라운지, 호프, 당구장등

현대공인중개사
☎ (062)371-1900, 011-638-2656 (삼부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급매물 상담 후 10일내 책임 중개

◀ 구합니다 ▶

- 광주시내 토지(면적이나 금액에 상관없음) 구함
- 기도원 부지: 장성,담양,화순 2만평이상
- 가격은 시가
- 장성 전원면 도로에 접한 생산농지-현금2억
- 병원 신축부지: 면적 가격은 물건 검토시 결정

▶ 팝니다 ▶

- 카센타부지 광산구 우산동 대지 117평 평당220만원 20m 도로변
- 상가부지 양산동 구획정리지구 아파트정문앞 161평 평당450만원
- 북구 용두동 40m 도로 계획선에 접 770평 평당55만원
- 광산구 삼도동 1,900평 2차선 도로에 접 평당 20만원
- 지하철 시정역부근 마곡동 574평 평당400만원 40m 도로계획선에 저축
- 컨벤션센터 부근 토지 마곡동 화해단지 908평 상담후 결정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부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대)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제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평원경제·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 경제-침시 안정한 수익이 기대되는 물건 상담환영!!

1. 첨단지구 월계동 상업지역내 5층 건물 대지161평 준공1년된 건물 건평가 25억/최저가 12억
2. 중랑동 2층 고급주택 대지211평 2002년도 준공된 건물 건평가 5억 5천/최저가 2억5천
3. 화정동 티미빌딩 현재 정려예식장으로 운영중인 7층건물 대지300평 건평가 35억/최저가 15억
4. 준주거지역 주상복합아파트 신축부지 1,000평 광주대입구 남구 진월동 금호아파트와 평당 300만원

AAA급 깨끗한 건물 긴급매각

1. 광안로4가리 주유소앞 건물총 대지71평 임대건물 회사사용 사무실용도제한 등량지구 개발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으며 매대가 5억 3천주인사정상 긴급매각
2. 농성동 상공회소 건너편 리모 밀링 원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건평가 18억 긴급매가 12억 임대 할수있는 건물임

성업중인 골프연습장 급매

1. 서구 용암동 자연녹지 7,400평 인 도화골프연습장, 최신시설 완비, 현재 성업중인 매대가 60억/ 주원 지역 개발가능성이 높음지역

긴급 부동산 물건매매

1. 용암동 구, 하이마트부지 1,000평 대평이트 복합신축빌딩역할 평당 7백만원
2. 병원학원주유소상가건물 신축부지 화정동 4가리 지하철역 도로변 코너부지 320평 매대가 평당 500만원
3. 담양 청평-대덕봉기슭간 도로변 공장부지-펜션-모텔-전원주택-카페-기타시설-미니골프장등으로 복합한 인입 14,000평 매대가 평당 15만원

동림동 생산농지 긴급매매

동림동-신가리 병원 생산농지 1,050평 매대가 평당 40만원 평당-청고-아파트 기타 근린시설 신축부지 지원 현금부지 확보지 주원시내 평당 60만원신축주인사정상 긴급매매

2005년도 광주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 선정기념!!

예식비 대폭인하!!

예식장최원, 공무원, 경찰, 기타관공서, 각종기관단체직원 예식비 20% DC 중...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부페식으로...

에 알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

www.ccgwangju.co.kr

대인동상일부동산
☎(대)229-1140, ☎010-602-2532 (중구로동 신복빌딩, 대인동 소재사건-관)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내 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연오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 내 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